

##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설립: 1987년 12월 3일

### 연구소가 하고 있는 일

정책연구사업: 장애우 관련 제반 법과 제도 연구,  
장애우 관련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교육사업: 장애우아카데미 운영, 장애우 관련 자료실  
운영, 장애우 관련 자료집 출판  
특별위원회: 의료특별위원회, 여성장애우 특별위원회  
인권옹호사업: 장애우 인권 및 법률과 생활 상담  
전문위원회 운영: 법, 교육, 직업, 의료

### 부설기관

장애우 관련 전문집지 월간 함께걸음을 발행  
장애아동 가족지원센터 운영  
보육시설 영3어린이집 운영  
장애우 직업센터 운영  
장애우 인권센터 운영  
장애우 문화센터 운영  
장애우 인권센터 운영  
장애우 정책실 운영

### 지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대구지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지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북지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지소

### 회원가입안내

회원자격: 월3천원 이상 회비를 납부해 주시는 분

보내주시는 회비는 연구소 운영과 장애아동가족지원센터 등 부설기관 운영비로 쓰여집니다. 회원은 연구소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초대되며, 연구소가 발행하는 함께걸음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시는 회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와 50조에 의거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실 수 있습니다.

인권정보자료실  
Md1.9

# 장애우 일일교사교육수첩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장애우 일일교사 교육수첩

-장애체험 교육을 위한-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우우도 친구도 일우우영

'장애우(友)'는  
장애를 지닌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 우리들의 친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목차 .....

I. 소개의 글

II. 장애우 문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III. 초등학교 수업진행 및 교육방식

IV. 다른 유형의 장애에 대한 이해

## 1. 소개의 글

**현** 재 전 세계의 지성인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나고 질문한다면 가장 많이 거론되는 문제는 '자연과 사회 생태계의 파괴'라고 할 것입니다. 자연생태계의 파괴는 대부분 가시적이지만, 사회 생태계의 파괴는 크게 약화되지 않으면 발견하기가 쉽지 않고, 발견이 되면 이미 손 쓸 수 없을 정도여서 사회와 그 구성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그런데 사회 생태계의 파괴는 전쟁, 인종말살 행위, 정치적 역할 등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유대 관계가 끊어지는 데서 오는 경우가 더 무섭습니다. 만일 인류가 이러한 사회 생태계의 파괴를 중지시키고 보수하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자연생태계의 파괴가 오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를 파괴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많은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실제로 각 계층사회를 비롯해 국제사회나 국가 지역사회 간에 심지어 가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회가 실패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끊어진 유대 관계를 잇고 주류와 비주류의 통합입니다. 이는 산업화 이후 새로운 공동체의 창조, 전통적 공동체의 재건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며, 공동체의 파괴는 가치와 도덕의 쇠락이라는 근본적인 위기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도시빈민 마약 폭력 교육 환경 문제 등은 공동체의 파괴로 인해 표면화된 문제들이며 세계가 지금 공통적으로 심각하게 앓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에 각 정부는 자체의 힘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기업 및 민간 부문과 함께 해결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선봉 또는 공통분모가 일반인의 참여이며 그렇기 때문에 장애체험과 장애우일일교사의 의의는 크다고 하겠습니다.

## 2. 장애우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 1. 인권의 정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집안 형편이나 기타의 다른 이유로 무시 받고 함부로 취급당한다면 누구나 삶이 힘들어 질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소중하게 다뤄지고 대접받고 싶어하며 그럴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자유로운 존재로 세상에 태어났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힘에 의해서도 빼앗길 수 없는 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모님의 실직으로 곤란을 겪거나 왕따가 된 친구를 볼 때,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 소외 받고 힘든 삶을 사는 사람을 목격할 때면 괜히 우울해진다. 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은 참으로 소중하다. 모든 사람은 똑같이 대접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바로 인권의 출발점이다.

## 2. 인권의 성격

### 1) 인권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이다.

인권은 인간다움을 지키기 위한 최저선 또는 최후의 보류이다. '기본'이나 '필수'라는 말에는 거기서부터 다른 모든 것이 출발된다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과는 구분하여 인권을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로 얘기한다. 인간이 그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인간답다'고 할 수 없는 선을 인권이라 할 수 있다.

### 2) 인권은 보편적이다.

인권은 보편적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곳에서나 모든 사람이 인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사람에 따라 좋고 나쁨이 달라지고 다르게 취급한다면 인권이라고 부를 수 없으며,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인권은 어떠한 특권에 도 반대하는 것으로 "모든 장소의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갖는 권리"이다. 인종, 피부



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또는 사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그 어떠한 지위에 따른 차별없이 누려야 할 권리이다. 이것이 보편성이다.

### 3) 인권은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국가권력을 제한한다.

모든 사람이 차별없이 당연하게 누려야 하는 것이 인권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인권을 억압하는 국가권력은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 우리에게서 정부가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판단할 잣대가 필요하다. 그 잣대가 바로 인권이다. 인권의 보장이야말로 권력이 존재하는 목적이자 이유이기 때문에, 국민은 인권을 억압하는 권력에는 언제든지 저항할 수 있다.

### 4) 인권은 법으로 보장되는 권력 이상의 것이다.

우리는 흔히 국내법이나 국제법으로 보장된 권리만 인권이라고 생각하곤 한다. 그러나, 인권은 법에 따라 보장되고 있는 권리에만 한정되지 않다.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법이 보장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권리라면 인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

## 3. 인권의 내용

### 1) 인권은 변화·발전한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인권의 항목은 수많은 변화를 거치면서 발전되어 왔다.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권리는 퇴보하였고, 어떤 권리는 강화되었으며, 어떤 권리는 새롭게 등장했다. 이것은 앞으로도 인권이 변화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새로운 인권침해가 출발하고, 사람들의 대응에 따라 새로운 권리가 또 만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인권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

니라 역동성을 갖는다고 말한다.

지금까지 인권의 변화 속에 등장한 권리의 내용은 크게 1·2·3세대 인권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세대'로 표현했다고 해서 순서대로 등장해 앞의 것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보완되고 확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2) 1세대 인권-자유권 혹은 시민·정치적 권리

봉건시대를 뒤로 하고 근대시민혁명을 통해 등장한 자유권은 정치권력의 남용과 오용으로부터 각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막이었다. 그래서 자유권은 국가가 개인에게 간섭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성격을 갖는다.

### 3) 2세대 인권-사회권 혹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근대시민혁명은 모든 인간의 인권을 선언하며 인권의 찬란한 신기원을 열었지만,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고치려 들지는 않았다. 그 결과 노동자에게 선거는 먼 나라 얘기였고, 여성에 대한 차별은 분명했으며, 저임금·장시간 노동과 아동노동의 현실은 끔찍한 것이었다.

자유가 의미를 가지려면, 자유를 통해 인간다운 생존을 추구할 수 있어야 했다. 자유를 가지고 뭔가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물질적 토대가 보장되어야 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투쟁을 통해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리보장과 노동조건 개선 등을 비롯한 실질적인 평등을 요구했다.

노동자들의 투쟁과 지배세력의 수용을 통해 인권에 새로 등장하게 된 권리들을 사회권이라 한다. 사회권의 보장을 위해서는 이전 시대의 역할과 달리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분배의 정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 요구되었다.

### 4) 3세대 인권-집단권 혹은 연대의 권리

1·2세대의 권리가 국가와 개인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각 개인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라면, 3세대 인권은 집단의 권리라고 말할 수 있다. 인권의 역사를 살펴보면 느꼈



졌지만 인권의 성립과 발전에는 서구 사회가 중심역할을 했고, 오늘날의 인권에는 서구 사회의 인권관이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서구 사회가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루고 인권보장체계를 세우는 동안 인류구성원의 상당수가 속해 있는 제3세계는 철저히 소외되어 왔다. 또한 서구의 발전은 제3세계의 희생을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다.

오늘날 독립국가를 이루고 있지만 제3세계의 많은 민족과 국가들은 강대국의 식민지였던 경험을 갖고 있다. 식민지 경험에 더해 아프리카 사람들은 3백년 이상의 노예 상태까지 겪어야 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제3세계의 대다수 민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억압과 착취를 경험했다. 그 결과 오늘날까지도 심각한 빈곤과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빼앗긴 세월을 되찾고 인간다운 생존을 보장받기 위하여 제3세계 민중은 권력과 자원, 부 그리고 기타 중요한 가치의 세계적인 재분배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많은 인권문제들은 한 나라나 개별국가의 힘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다. 평화롭게 살 권리,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재난으로부터 구제받을 권리 등은 국경을 초월한 단결과 연대를 필요로 한다. 이런 배경에서 제3세대 인권을 '집단권' 혹은 '연대의 권리'라고 부른다.

#### 4. 한국의 장애인 인권상황

우리나라 법무부는 2000년 8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서 인권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를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인권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인권법(안) 제32조 2항에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종교, 나이, 장애 ..... 용모 등 신체조건 .....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본다"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8조 "①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 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장애인에 대한 평등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 시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재임용에서 탈락해 11년 동안 정들었던 대학강단을 떠날 위기에 처한 시각장애우 교수, 터너증후군으로 인간다운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는 일곱 살배기 친자식을 죽여야 했던 비련의 어머니, 첫 출근의 기대에 부풀었으나 회사측으로부터 함께 일하기가 어렵다는 전화를 받고는 비판 끝에 자신과 늘 함께 했던 전동휠체어와 함께 달리는 자동차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뇌성마비 장애우 등의 사건은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례이다. 또한 청각언어장애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현혈하는 것을 거절당했고, 양목발에 의지해야 걸을 수 있는 여성장애우는 치과의사에게서 목발을 밖에도 두고 들어 올 것을 요구받아 황당해 했고, 신체적인 이유로 교원을 양성하는 교육대학에 입학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시험에서 탈락했고, 자신의 아들이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40일된 아이에게 청산가리를 탄 우유를 마셔 죽게하는 등등 여러 형태의 반인권적인 사회현상은 언론에 알려진 사례들이다.

#### 5. 한국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우리 전통사회에서 장애우는 사회에서 늘 멀리 당하고 소외당한 채 살아왔다고 볼 수 있다. 전통사회의 장애인관을 엿볼 수 있는 각종 호칭을 살펴보면 장애우를 부르는 끝말이 "이"나 "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장애우를 경멸의 대상으로 표현한 각종 속담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과거 임금들은 당시의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때때로 궁궐에 불러 모아 잔치를 베풀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러한 관행은 오늘날에도 유지되고 있다. 장애인 일반에 대해서는 이구동성으로 동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정작 장애우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문제에 부딪치면 무관심하거나 냉담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사회복지의 문제를 사람이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인재로 보지 않는 우리 전통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우리의 전통적인 인식이 계속되면서 산업사회로의 급속한 이전 과정에서 장애우를 더욱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규정해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볼 때, 한국의 장애우관은 약자무시의 전근대적인 사회적 관습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한국민족의 특유의 동질의식·완전인간의 지향 등이 그 원인이 된다고 한다.

이러한 장애우에 대한 편견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비장애우의 주관적인 발상에서 기인하는 것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장애를 입고 살아간다는 것이 현대의학적 인간학의 통찰이다.

## 6. 국제기구의 장애우의 인권에 대해서

유엔은 1980년 1월 13일 「세계장애인의 해 행동계획」을 채택하면서 장애우들이 사회생활 및 사회개발에 있어서 "완전참여와 평등"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장애우에 관한 모든 문제는 전체적으로 인식되어야 하고, 특별한 욕구에 따른 지원이 고려되어야 하며, 개발도상국에 있어서의 장애우 문제의 해결은 국가개발전략에 통합되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장애가 무엇인가에 대한 대중의 이해, 그리고 장애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방안마련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우를 위한 정책을 입안할 때 장애우의 능력개발에 중점을 두고, 장애우가 사회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일련의 제한적이고 차별적인 것들을 처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접근권을 보장하는 등의 노력을 담고 있다.

장애관련 권리선언은 1971년 12월 유엔에서 결의한 정신지체인의 권리선언으로부터

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선언은 정신지체인들이 다양한 활동분야에서 그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원조하고, 가능한 그들이 일상생활에 통합될 수 있도록 촉진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975년 12월 9일 장애우에 대한 기능적인 정의, 인간의 존엄성 존중, 시민권과 정치권, 자립, 경제적, 사회적 보장, 국가계획에서 고려될 특별한 요구, 가족생활, 착취로부터의 보호, 법적 원조, 정보접근 등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의 권리선언"이 유엔 30차 총회에서 결의되었다. 1976년 세계 장애인의 해 선언, 1980년 세계장애인의 해 행동계획, 곧이어 1980년 여성을 위한 10년 세계회의의 평등, 모든 연령 여성장애우의 상황 개선을 채택했다. 이어 유엔 아동기금에서는 아동 장애의 예방과 재활, 1955년 국제노동기구에서는 장애우의 직업재활에 관한 권고, 1975년 국제노동기구는 제네바대회에서 장애우의 직업재활과 사회통합에 관한 결의 등이 행해졌다. 1977년 세계맹인복지협의회, 농·맹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헬렌켈러 세계회의에서 농·맹인의 권리선언을, 1972년 세계농아연맹 총회에서는 농아인의 권리선언을 채택한 바 있다.

이상과 같이 장애우에 관한 국제문헌이 장애우의 인권을 실천적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장애우인권은 장애우가 타 시민과 동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평등이 실현될 때 보장되고, 이러한 평등은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환경 속에서 실현될 때에만 정당화된다. 그리고 평등하고 정상화된 장애우의 권리는 또한 사회통합이라는 형태를 달성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장애우의 권리는 문제해결의 출발점이며 그 구체적 실천은 평등과 정상화 그리고 사회통합의 세가지 형태가 동시에 충족될 때 가능해진다. 선진국은 장애문제를 권리로 보고 해결방식도 인권에 기초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미국의 장애인법, 영국과 호주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스웨덴의 경우는 일반 사회정책안에서 장애우를 완전통합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일본에서도 일부에서는 장애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보고 장애운동의 기반을 반차별 운동으로 삼고 있다.



## 7. 장애인 인권침해의 대표적인 유형과 사례

한국장애인 인권백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1999.

### 1) 생활환경

장애우는 신체적 손상과 기능장애로 인한 교통, 통신설비, 공공건물, 도로이용 등의 물리적인 환경에 적응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물리적인 장벽은 장애우들의 사회참여 제한의 원인이 되고, 이로 인해 사회적 고립과 격리를 경험하게 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 구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언론에 나타난 차별사례의 제목만 보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식당에서 못들어 오게 함
- 부산 한 스포츠센터에서 장애우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함
- 공공기관 이용시 편의시설 부재
- 출근시간에 버스를 타면 바쁜 시간에 탄다고 편잔을 줌
- 휠체어로 접근이 불가능함, 버스나 지하철을 탈 엄두도 못내기 때문에 관공서나 어디를 가려고 해도 엄두가 나지 않음.
- 구청이나 병원에 수화통역사가 없어서 많이 어려움
- 리프트가 있어도 담당자가 없거나 있다 해도 작동법을 잘 모름
- 시각장애우의 경우 은행에서 대출이나 카드 발급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함

### 2) 직업생활

우리사회에서 장애라는 이유만으로 직업생활에 있어 인권침해의 경험이 절반정도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학력이 높을수록 직업생활에 있어서 차별경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교육권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차별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양상을 보면

- 보수 면에서 동등한 능력을 가진 사람과 차별대우를 받음
- 장시간 일을 했음에도 작업량이 적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보다 돈을 적게 받음
- 일반 회사 취업시 끊임없이 눈치를 주어 그만 두게 함
- 취업 면접시 능력이 있음에도 무조건 거절당함
- 아르바이트 주인이 처음에는 장애우인지 잘 모르고 있다가 몇일 후에 알고 나서는 손님들이 보기에 안좋다며 해고함

### 3) 주거생활

가족 중에 장애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주인으로부터 입주를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장애우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장애를 이유로 집값을 부당하게 높게 지불한 경험을 한 경우도 있고, 주택 개조시 주인으로부터 거절 당하는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 또한 이웃과의 친목활동에 있어 의도적으로 배제를 받은 경험이 많고, 공동주택에서 편의시설을 사용하는데 불편을 경험한다고 한다.

잘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주거 생활에 있어서의 차별사례는 의외로 구체적이다.

- 휠체어 때문에 계단의 경사로 설치를 하는데 이해가 없음
- 재수가 없다는 이유로 임대를 거절함
- 동네 단합대회 같은 행사에 의도적으로 제외시킴
- 농아인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싫다고 하여 동네에서 이사가라고 함

### 4) 의료시설 이용

뇌성마비 장애우, 발달장애, 시각, 청각 장애우 등 비교적 장애가 심한 경우에 의료시설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치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등을 이용함에 있어 거부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 장애우가 병원을 이용시 편의시설미비는 물론 장애우보조시설이 너무 부족하여 병원치료에 어려움을 겪음.
- 병원 치료받을 때 정신지체인이라는 이유로 진료에 대해 대충 진단을 내려 오진을 받은 적이 있음
- 치과, 이비인후과 이용시 몸을 많이 움직인다는 이유로 진료거부를 당함
- 보건소에서 감기예방접종을 하러 갔는데 간호사가 앞도 안 보이면서 혼자 다닌다며 보호자를 동반해야지만 진료를 해준다고 함
- 진료차례가 되어도 듣지 못하므로 다른 사람이 먼저 진료하게 하여 장시간 기다림
- 일반인과 같이 진료를 받았을 때 일반인에게는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장애우에게는 설명이 없음.

### 5) 교육환경

법적으로 장애우의 교육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는 아직도 여러 형태의 차별이 일어나고 있으며 유치원교육에서부터 대학교육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직·간접적인 교육차별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학교에서 급우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소위 "왕따"를 당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특수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수화를 모르는 교사가 있어 수업에 매우 어려움을 겪는 경우
- 대입 시험시 신체장애라는 이유로 입학 거부사례
- 초등학교 6년생인데 담임선생님으로부터 "배우는 것도 없는데 왜 부모가 학교에 보내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들어 부모로서 너무 당황하게 함
- 일반 유치원에 통합을 시키기 위해 보냈는데, 원장을 비롯, 담임으로부터

- 매번 힘들다는 소리를 들으며 나오지 말기를 원하는 말투를 자주 하여 결국 유치원을 계속 다니지 못하게 함
- 장애학생의 진로지도에 대해 무성의와 무관심을 보임

### 6) 가족생활

가족들이 장애우를 대하는 잘못된 태도는 크게 두가지로 나타난다. 극단적인 보호 태도를 보이거나 이와는 정반대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혼자서는 절대 외출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과보호로 인해 자립기회를 주지 않거나 가족 행사시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형제 결혼시 상대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려해서 인사를 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 가족의 혼사 문제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파혼된 적 있음
- 형제들의 결혼시 상대방 가족들에게 인사를 못함
- 할아버지 초상때 못오게 함
- 조모가 손주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보육원이나 농아시설에 보내라고 부모님에게 강요함
- 가사일을 도울 때 장애우 본인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데, 가족들이 알아주지 않고 무시함
- 가족이 모두 외출할 때는 혼자 집에 있음.
- 그리고 가족행사에는 갈 생각도 안하고 데리고 갈 생각도 안함
- 외식하러 갈 때 가끔 장애우 모르게 가는 적이 있음

### 7) 공공기관이나 선거에서의 차별

가장 차별을 줄일 수 있는 부문에 해당함에도 적지 않은 차별이 이루어 지고 있다. 특히 선거는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리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면 장애인이 당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의 차별을 가늠해 볼 수 있겠다.



- 공공행정기관 이용시 직원이 장애우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귀찮아 함
- 동사무소 이용시 본인이어도 보호자가 대동해야 문서를 떼어줌
- 경찰관들의 몰이해와 불친절
- 관공서에서 접수 및 안내 창구의 불친절
- 통역이 없어 의사전달이 안됨
- 해당부서가 2층에 있어서 담당자와 상담을 못하는 경우
- 선거시 정신지체라는 이유로 선거권에 대해 무시당함

### 3. 초등학교 수업진행 및 교육방식



## 1. 일일교사로서의 마음가짐

### 1)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는 교사

교사는 헛되게 보내는 시간을 없애고 무리없이 지도를 해야 한다. 수업을 비롯한 지도는 특히 치밀한 계획을 필요로 한다. 계획성 없는 지도는 시간을 헛되이 만든다. 일일교사는 열린교육의 차원에서 아이들의 능력에 맞는 다양한 교육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교재연구를 잘 하는 것이 열쇠이다. 각각의 아이들마다 수업시간에 문제의식을 갖게 하면서 시행착오를 통해 좌절을 맛보게 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교재연구는 아이들의 학습에 흥미를 주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한다.

### 2) 말과 행동이 매력적인 교사

수업은 기술이라고도 하고 예술이라고도 한다. 교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는 아이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말이 매력적인 교사가 되려면 알기 쉽고, 정확하게 말해야 한다. 그리고 서로 따뜻하고 아름다우며 마음에 파고드는 말을 구사해야 한다. 행동을 발랄하고 명랑하게 하여서 사소한 배려에도 교육적인 행위가 느껴지도록 하는 것이 좋다. 아이들은 상냥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끌어 주는 교사를 원한다. 격이 없이 이야기하고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사랑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 3) 가르치는 기술이 뛰어난 교사

일일교사는 매체를 잘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장애체험 교육시 주어지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TV나 대중매체의 사건들을 아이들 스스로 잘 듣고 정리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

### 4) 뒤떨어진 아이를 스타로 만드는 교사

아이들은 관심이 뒤떨어지면 학습에 흥미를 잃게 된다. 관심이 없어지고 분위기가



산만해지면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첫째 할 일이다. 그 다음은 흥미를 갖고 자신감을 갖게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들의 장점을 발견하여 칭찬을 많이 해주는 것이 좋다. 아이 한명 한명의 특성을 학급이라는 집단 속에서 살려 나가야 한다.

### 5) 아이들의 발언을 활용하는 교사

아이들의 발표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갖는다. 틀린 답을 말했다고 해서 바로 질책하지 말고, 아이를 격려해서 태도를 높여 주는 것이 좋다.

발표하기가 부끄럽고 자신이 없는 아이는 이야기를 못하게 된다. 여기에 열등감, 성격적인 것이 겹치게 되면 발표는 더욱 어렵다. 이때는 그 아이와 교사가 같은 편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교사는 발표를 강요하는 발문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이들의 좋은 발언내용을 살려 나가야 하고 아이의 발언 등에 무리하고 부당한 것이 있더라도 잘 살피 주어야 한다. 아이들의 발언을 살려 주는 것은 결국 학급의 사기를 높이는 결과가 된다.

## 2. 수업에 대하여

### 1) 수업에 대한 마음가짐

초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일, 아무런 연구도 필요 없는 일이라는 생각은 금물이다.

아동들이 소중하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한다면 수업을 그렇게 쉽게 보지 않을 것이다. '좋은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동들을 존중하는 마음부터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교사로서의 자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들에게 좀 더 의미있는 경험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 2) 안내자로서의 일일교사

사람마다 모습이 다 다르듯이 수업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나 실제로 수업하는 방식 또한 다르게 마련이다. 일일교사들 중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번 시간에 가르쳐야 할 것을 아이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쥐어주었을 때 뭔가 가르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해야 할 일을 한 것 같은 생각을 갖는다. 이런 생각 때문에,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어야겠다고 결심하지만, 이내 일방적이고 주입식으로 설명하고 만다.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 그 아이가 우물쭈물하면 곧바로 교사가 말해버린다. 조금 기다려주는 여유를 가지고 있지 않다.

장애우 일일교사는 지식을 주입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들로 하여금 장애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하게 해 주는 사람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일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안내자로서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고, 좀더 깊이있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일상 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에 매력을 느끼고, 뭔가 하나씩 하나씩 쥐어주어야 한다는 유혹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 3) 열린 마음의 일일교사

공부를 많이 하고 다양한 자료를 수집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좋은 수업을 하는 데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 현장에 와서 실제로 수업을 해보고, 연수도 받고 수업 연구하는 것을 보고 배울 필요가 있다.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수업을 많이 했다고 해서 꼭 수업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부단히 노력할 때 수업을 잘 할 수 있게 된다. 다른 사람이 한 수업을 보고, 책에서 좋은 것을 보고 이번 시간에는 이것을 한번 제대로 적용해 보아야지 하는 생각을 갖고 수업



에 임한다. 수업이 끝난 다음에는 그 수업을 철저히 분석해 보고, 고칠 점을 찾아 다음에 다시 적용해 본다. 매사에 탐구하는 자세를 가질 때 수업을 잘 하는 일일교사가 될 수 있다.

### 3.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 1) 충분한 자료 확보를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이 시간에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지, 대체로 어떤 과정을 전달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수업이 시작되기 전 5분 정도의 시간을 갖고 오늘 이야기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하고 들어가면 수업이 잘 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잡지나 인터넷을 참조하는 것도 좋다. 장애와 관련된 최근 사건이나 보도자료, 따뜻한 미담 등도 수업준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러한 자료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조금만 바꾸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다. 이들 자료들을 적극 활용한다.

#### 2) 수업의 큰 흐름을 생각한다.

직접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수업의 큰 흐름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수업의 목표나 내용을 보고, 어떤 절차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를 생각해 둔다. 중복되는 내용을 검토하고 수업진행방향을 파악한다. 자원봉사자의 활용과 도구의 활용 등도 꼼꼼하게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 물론 상황에 따라 그 방식을 다소 수정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수업의 큰 흐름을 생각해 두면 수업이 결길로 빠져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3) 핵심을 정리해 둔다.

흔히 일일교사들은 열정이 많아서 너무 많은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수업시간에 이것저것을 가르치려고 하다보니 자연히 시간이 부족하고 주입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게 된다. 너무 욕심을 내지 말고, 이번 시간에 꼭 가르쳐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생각해 두는 것이 좋다. 보통 이것은 수업목표에서 도출해 낼 수 있다. 수업 목표를 살펴보아도 무엇을 이야기할지 분명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다. 그리고 가끔은 이것을 왜 이야기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때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교사의 입장에서 재구성하여 이번 시간에 꼭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 이는 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는데 도움이 되며, 수업 중이나 끝난 다음에 평가를 할 때에도 목표를 분명히 하는 데 도움이 된다.

#### 4) 수업할 때 주의할 점

##### (1) 동기유발에 최선을

동기가 유발되지 않으면 아무리 수업기술이 뛰어나더라도 좋은 수업을 하기 어렵다. 동기가 유발되면 절반은 성공한 셈이다. 우선 동기를 유발하는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요즘 아이들의 관심을 끌만한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간단한 노래나 율동, 놀이를 통해 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장애체험과 관련하여 유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 (2) 학생들도 수업의 절차를 알아야

강의를 할 때 목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강의하는 것을 보면 목표를 칠판에 한줄 정도 적는 것으로 목표가 확인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사람에게 따라서는 목표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하는 경우가 있지만 학생들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이번 시간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느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만 수업에 집중할 수 있다. 보다 정확하게 강의목표를 인식하는데 좀더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



### (3) 생각해 보게 하는 수업을

수업을 할 때에는 학생들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문제를 여러각도에서 보도록 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생각해 보게 하고, 자신들이 실행한 방법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끼리의 협동을 최대한 강조할 필요가 있다.

### (4)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은 있으나 학습은 없다'라는 말이 있다. 무언가 부산스럽게 활동은 하지만 정작 그것을 통해 무엇을 배웠느냐고 하면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장애체험을 하지만 정작 그것을 통해 의미 있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면 체험을 했다고 말하기 어렵다. 강의와 체험이 재미있어야 하지만, 재미있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무언가의 의미 있는 것을 터득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강의를 할 때 항상 이러한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무엇을 배웠느냐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활동 위주로 끝나버리는 것은 곤란하다. 활동을 통해 의미 있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

### (5) 적절한 자료를 적시에 투입

흔히 일일교사들은 열정이 너무 많다 보니 자료를 많이 개발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자료가 있는 경우에 수업의 효과를 높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자료를 개발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자료가 자료를 위한 자료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꼭 필요한 자료를 개발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자료를 적시에 투입할 필요가 있다. 한 시간에 너무 많은 도구를 활용하면 오히려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 (6) 수업 마무리를 철저하게

수업 마무리를 잘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업이 끝나면 정리해 보는 활동

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들이 이번 시간 동안 배운 것을 정리해 보게 하는 것이 좋다. 간단히 말로 해보게 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써보게 할 수도 있다.

## 4. 장애체험의 배경

일반 초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장애체험과 주변의 교육환경을 점검하면서, 장애를 가진 친구가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지, 그리고 함께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이 갖추어져야 하는지를 장애체험을 통해 경험하게 한다. 이는 편의시설은 장애우의 접근권 및 이동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임을 깨닫게 하고 장애우의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사회의 장애우에 대한 이유없는 편견은 아동기 때부터 장애우를 접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노인, 임산부, 장애우 등을 위한 편의시설설치에 대한 몰이해는 편의시설이 일반인에게도 필요하다는 경험을 하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편의시설점검과 장애체험을 통한 장애우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편의시설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일선 학교에서는 교구 및 전문성, 시간의 부족으로 본 업무 이외의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장애체험을 활성화시키고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기관 및 연구소 등 전문기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5. 장애체험의 목적

- 1) 아동기부터의 교육을 통해 장애우를 보다 친숙하게 대할 수 있도록 한다.
- 2) 아동의 인식변화로 인한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정의 변화를 꾀할 수 있다.
- 3) 학부모의 자원봉사참여를 통해 장애체험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한다.
- 4) 장애체험을 통해 장애우의 사회환경개선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킨다.
- 5)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안전한 무장벽공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다.

## 6. 장애체험의 진행

### ♣ 운영방침

- 행사기간 동안 선임되어 파견된 장애우 일일교사와 체험할 초등학생들이 함께 모여 강의를 듣고 질문의 시간을 갖는다.
- 일일교사의 장애특성상 목소리가 작아 전달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핀마이크를 준비하는 것이 학생들의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
- 자원봉사자는 학생들의 그룹에 합류해 함께 강의를 들으며 그룹원과 친해질 수 있도록 한다.
- 학생들이 체험하게 될 장애종류 및 교구사용법, 프로그램을 사전에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 1) 장애우 바로 이해하기

- (1) 장소 : 해당학교 학급 및 강당, 또는 1층 교실
- (2) 시간 : 약 40분(체험전 1교시)

(3) 교육강사 : 장애우 일일교사(교사교육을 받은 장애우)

(4) 준비물 : 학생들에게 나누어줄 교안, 휠체어, 흰지팡이, 안대 등 교육에 필요한 물품, 1일교사가 사용할 핀마이크, 앰프 및 스피커, 1일교사가 마실 음료수

### (5) 진행방법

- ① 담당간사가 기관 및 장애체험의 의의를 간략하게 소개한다.
- ② 일일교사가 장애의 이해를 돕는 강의를 하고, 잘못된 인식·편견 등으로 인하여 생활 속에서 경험했던 에피소드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 ③ 담당간사나 일일교사가 장애체험시 사용하게 될 보장구에 대해 설명하고 질문을 받는다.

### 2) 장애 체험

(1) 장소 : 학교 내부시설 및 주변의 통학로, 은행·슈퍼마켓 등 생활시설, 관공서 등

(2) 시간 : 약 40분-50분

(3) 인원 : 1개 학급 전체

(4) 준비물 : 휠체어, 흰지팡이, 안대, 체험시 소요비용, 안내문, 설문지

### (5) 진행방법

- ① 학생들을 휠체어 체험과 시각장애 체험으로 나누어 팀구성을 한다.
- ② 각 팀을 다시 2인 1조로 구성한다. 2인중 1인은 장애우, 또다른 1인은 도우미가 된다. 일정지점에서 역할을 교대한다.
- ③ 조편성이 끝나면 학생들에게 안내문과 휠체어 또는 안대와 흰지팡이를 나누어 준다.
- ④ 일일교사는 자원봉사자와 함께 장애체험을 지도할수 있고 남아서 종합토의를 준비할 수도 있다.
- ⑤ 장애체험은 안내문의 내용대로 실시되며, 장애우의 역할을 하는 학생이 혼자 힘으로 체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도우미는 위험한 턱이나, 코너를

둘 때 도움을 주며 처음부터 끝까지 휠체어를 끌어주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는다.

- ⑥ 학생들이 체험도구로 장난치지 않도록 하며 진지하게 임하도록 한다.
- ⑦ 체험이 끝나고 교실로 돌아오면 체험도구와 소요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회수하고,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한다.

### (6) 장애체험 내용

- ① 학교 내부시설의 편리성을 알아보고, 통학로의 안정성을 점검한다.
- ② 장애체험을 통해, 평소 느끼지 못하던 여러 감각기관의 기능과 몸의 소중함을 느낀다.
- ③ 체험을 통해 보장구의 중요성과 편리한 시설공간에 대한 이해력을 기른다.
- ④ 체험을 통해 장애가 있는 친구들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 3) 종합토의

- (1) 장소: 해당학교 학급 및 강당, 또는 1층 교실
- (2) 시간: 약 40분
- (3) 인원: 장애체험에 참가한 학생들, 교사, 자원봉사자, 일일교사
- (4) 준비물: 전지, 매직, 필기도구, 소감문용지
- (5) 진행방법
  - ① 설문지 작성이 끝나면 종합토의를 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여 기록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일일교사는 조에 들어가 모든 학생들이 고루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자연스러운 토의가 될 수 있도록 돕는다.
  - ② 각 조의 조원이 나와 정리된 내용을 발표한다.
  - ③ 발표한 내용에 대해 학생들이 질문과 느낀점을 나누도록 한다.
  - ④ 발표가 끝나면 일일교사와 담당간사가 총평을 한다.
  - ⑤ 기자재와 현수막 등을 수거하고 마무리를 한다.

## 7. 일일교사의 역할

### 1) 일일교사 교육에 참가하여 장애체험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는다.

장애체험을 하기 전 일일교사 교육에 참가하여 장애체험의 의의 및 필요성을 숙지한다. 또한 체험도구를 사용한 실습을 통해 일일교사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함으로써 효과적인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2) 장애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이해한다.

체험 전 장애우 일일교사가 학생들에게 장애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교육후, 학생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타 장애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이론을 이해함으로써 학생들의 질문에 대비한다.

### 3) 체험도구의 사용법을 숙지한다.

휠체어, 흰지팡이 등 사용법을 숙지하여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체험 중 당황하지 않도록 한다. 일일교사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도구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있지만, 다른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보조구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다. 체험도구의 사용법을 미리 숙지하여 학생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 4) 학교 주변환경 및 학생들, 지역주민의 안전에 유의한다.

장애체험은 크게 시각과 지체장애로 나뉘어, 학생들이 주로 생활하는 학교와 주변 지역에서 실시된다.

일일교사는 초등학생들이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며, 주변 환경의 위험물로부터 안전하게 체험을 끝낼 수 있도록 돕는다.





4.  
다른 유형의 장애에 대한 이해



## 1. 발달장애

발달장애란 미국에서 1978년에 제정된 재활, 포괄적 서비스 및 발달장애법에 의하면, 3가지 이상의 생활활동영역(신변처리, 언어, 학습, 이동성, 자기관리, 독립적 생활, 경제적 자급)에 있어서 실질적인 기능상 한계를 초래하는 22세 이전에 출현하는 정신적·신체적 혹은 그 모두에 기인하는 심각하고 만성적인 장애를 말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발달장애라는 개념이나 정의가 익숙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인지적, 기능적 기능과 감각능력, 의사소통 능력, 사회적 행동 면에서 평균의 사람들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교육과 잠재적인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다. 아동기에 많이 나타나는 장애로는 일반적으로 인지적 발달이 늦는 정신지체, 전반적 발달 장애로는 자폐증과 학습이나 언어와 같은 특정발달장애로 구분하고 있다.

### 1) 특징

우선 말이나 지능의 발달이 "늦다"는 점이다. 이런 발달장애는 아동기의 행동이나 심리, 정서적인 장애와 더불어 아동기 발달과 적응에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키기 때문에 적기에 발견하여 도움을 준다면, 예방과 아동의 생활이나 진로를 위한 교육의 효과가 크다고 한다. 그러므로, 평소 발달장애를 포함하여 아동기에 많이 볼 수 있는 몇몇 장애에 대해 알고 있다면, 아동의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아동의 발달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겉으로 드러난 특성과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테면, 신경·생리적 기능의 이상인가, 환경에서 오는 문제인가를 알아야 하고, 이런 문제에 의해 야기되는 행동이나 기능 특성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일이 교육이나 치료에 지름길임은 부정할 수는 없다.



## 2) 자폐 증

자폐증이란 다른 사람과 상호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정서적인 유대감도 일어나지 않는 아동기 증후군(syndrome)으로 '자신의 세계에 갇혀 지내는' 상태에서 지낸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발달장애이다.

자폐증의 원인은 모르며 뇌의 정보처리 방식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짐작한다. 일부 학자들은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온 정보를 처리하는 뇌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도 하며 뇌의 화학물질 부조화에 기인할 수도 있다고 본다. 또한 현대에 들어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미루어 환경적인 원인을 추측하기도 한다.

자폐증은 24개월 전후에 발병하며 대부분 '늦된 아이'나 '순둥이'쯤으로 생각하다가 언어발달이 늦어지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에 전문가를 찾아 알게 된다.

자폐아는 발달 전반에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신지체, 학습장애, 간질등의 다른 발달장애가 동반될 수도 있다. 증상은 심한 경우에서 아주 가벼운 것에 이르기 까지 매우 다양한데, 아주 심한 경우는 기괴한 행동이나 공격성, 때로는 자해행위까지 나타나며, 가벼운 경우는 학습장애처럼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폐아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증상을 보인다.

### A. 대인관계 측면

눈맞춤이 안되며 사람을 무생물처럼 대한다.

안아 주려해도 잘 안기지 않는다.

엄마에게 매달리거나 엄마와 떨어지면 우는 것과 같이 정상적인 격리불안이나 낯가림이 없다.

표정이 없으나 원하는 일이 안되면 괴상을 지르거나 이상한 행동을 한다.

### B. 언어발달 측면

유아 초기 때 웅얼이, 얼굴의 표정, 눈 맞춤, 몸 놀림, 자세 등으로 보아 전혀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언어발달 늦으며 스스로 단어나 문장을 구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앵무새처럼 되풀이할 때가 많다.

어른들의 손을 잡아 끌어 필요한 것을 해결한다.

말을 시작해도 사회성과 관련된 '엄마, 아빠'등 호칭어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름을 불러도 반응하지 않아 듣지 못하는 듯하나 TV선전에는 빠른 반응을 보인다.

TV에 나오는 선전문구나 동요, 노래는 정확히 외우지만 의미는 모른다.

말을 할 때 책을 읽는 것처럼, 억양이 단조롭고 고음으로 말할 때도 있다.

'나'와'너'를 구분하지 못해서 "과자 줘"가 아니라 "과자 줄까?"라고 말한다.

### C. 행동적인 측면

몸을 빙글빙글 돌리든가, 손을 계속 관찰한다든가, 차 바퀴만 돌린다든가, 책장을 계속 넘긴다든가 하는 식의 몇 가지 행동을 되풀이한다.

장난감을 원래 기능대로 가지고 놀지 않고 특정 부분에 관심을 갖는다. 특정한 물건에 대해 집착이 강해서 그것을 빼앗으면 울고 소리 지르며 거세게 저항한다.

새로운것을 접해도 그중 한가지만 집착하고, 다른 자극은 무시하는 식의 선택성을 보인다.

몸에 손대는 것을 싫어한다.

같은 물건, 같은 모양, 같은 순서를 고집한다.

손이나 팔을 심하게 흔들거나, 까치발로 걷거나 몸을 전후좌우로 움직인다.

산책시 같은 길을 고집하는 등 조그마한 변화에도 못참고 큰 반응을 보인다.



## 2. 시각장애

### 1) 시각장애에 대한 바른 이해

#### (1) 시각 장애우도 볼 수 있다.

흔히 시각 장애우는 전혀 아무 것도 볼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실제로 시각 장애우 중에서 전혀 시력이 없는 사람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시각 장애우의 상당수는 명암을 구분할 수 있는 광각이 있거나, 회미하게나마 색깔을 구분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 남아 있는 시각 기능을 이용하여 그것을 일상 생활에 활용하고 있다.

#### (2) 시각 장애우도 영화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시각 장애우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영화나 텔레비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거나 전혀 감상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옆에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이야기해 주면 어느 정도 즐길 수 있다.

#### (3) 시각 장애우는 신통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니다.

시각 장애우는 시력을 상실한 보상 작용으로 다른 감각, 예를 들면 촉각이나 기억력 등이 훈련을 통해 더 발달될 수 있다. 그렇다고 시각 장애우가 보통 사람들과 다른 유별난 초능력의 소유자는 아니다. 시각 장애우도 보통 사람과 비슷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 (4) 약시인 사람이 눈을 많이 사용해도 시력이 떨어지지 않는다.

소수의 경우에 눈을 과다하게 사용하여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대부분 눈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해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시각적 식별 능력

은 훈련을 통하여 실제로 증진될 수 있다.

또한 약시인 사람이 특수 렌즈를 끼거나, 눈 가까이 책을 대고 본다고 해서 시력이 더 나빠지지는 않는다.

#### (5) 시각 장애우용 안내견은 장애우가 원하는 곳을 어디든 안내하지는 못한다.

안내견이 어디든지 안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이다. 시각 장애우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먼저 알아야 안내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안내견은 단지 위험한 곳이나 장애물을 피하게 도와주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안내견의 안내를 받아서 이동할 때는 서서 구경하지 말고, 방해가 되지 않게 잠시 피해 주는 것이 좋다.

### 2) 시각장애우를 대할 때

(1) 시각장애우와 인사할 때는 먼저 이름을 말한 다음, 악수를 청하면 친밀감이 더 생길 수 있다.

(2) 시각장애우가 길을 물을 때, 방향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해 주어야 한다.

"여기", "저기" 등 애매한 표현은 피하고,

"오른쪽으로 5m를 간 다음, 다시 왼쪽으로 10m 정도 가세요."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시각 장애우에게 가장 도움이 된다.

(3) 시각장애우를 안내할 때에는 흰 지팡이의 반대편에서 팔을 잡게 하고, 반보 앞에서 걷는 것이 좋다. 흰 지팡이는 시각장애우의 눈과 다름없기 때문에 지팡이를 든 손을 만지거나, 잡아끌거나, 밀어 내는 것은 피해야 한다.

(4) 시각장애우와 함께 식사를 할 때에는, 식기의 위치와 내용물을 작은 소리로 설명하고, 음식물의 위치는 시계 방향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좋다.

(5) 시각장애우는 영화나 텔레비전 시청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면 일반인과 같이 즐길 수 있다.



(6) 시각장애우를 의자에 앉게 할 때에는 의자 등받이에 손을 갖다 대고 직접 확인시키는 것이 좋다.

(7) 시각장애우에게 돈을 건네 줄 때에는 화폐 단위를 설명해 주어야 한다.

지폐의 경우는 한 장 한 장 건네주면서 단위를 설명해 주어야 하며 동전을 건네 줄 때에도 일일이 그 단위를 말해 주어야 한다.

### 3) 시각장애우의 안내방법

시각장애우를 보면 먼저 말을 걸어 줍시다!

시각장애우가 스스로 시각장애우임을 밝히고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우리사회의 제반 문화적, 정서적 조건을 고려해 볼 때 아직까지 시각장애우가 그러한 자세를 견지하는데는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 (1) 거리에서 시각장애우를 만났을 때

길거리에서나 건물안에서 자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각장애우를 보았을 때 먼저 그 시각장애우에게 다가가서 "제가 도와드릴까요?" 물어보십시오.

이 때 그 시각장애우가 도움을 요청할 때는 도와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놓아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시각장애우는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 (2) 시각장애우와 함께 걸어갈 때(안내보행)

시각장애우와 함께 걸어갈 때는 시각장애우으로 하여금 안내자의 팔꿈치 윗부분(알통이 있는 부분)을 잡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각장애우는 안내자보다 약 반보정도 뒤에서 가게 됩니다.

길을 갈 때는 시각장애우의 앞쪽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는지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좁은 공간을 빠져 나갈 때나 길 모퉁이를 돌아갈 때는 특히 시각장애우가 장애물에 부딪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계단이나 길 위에 있는 턱을 만나게 되면 시각장애우에게 알려주어 미리 조심을 하도록 환기를 시켜줍니다.

"앞에 계단이 있습니다"

"왼쪽으로 돌아갑니다"

건물내부에서는 시각장애우의 머리부분이 혹시 벽으로부터 돌출된 장애물에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3) 길거리에서 시각장애우가 길을 물어 올 때

"실례합니다. 이 근처에 주유소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오면

"저쪽으로 가셔서 길 모퉁이를 돌아가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면 시각장애우는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쪽' '길모퉁이' '한참 가면' '저기 하얀 건물' 등과 같은 말을 하면 올바른 안내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한 10 미터정도 가시면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모퉁이가 나옵니다."

"그 길로 들어가셔서 한 10 미터정도 가시면 왼쪽에 주유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정도 구체적인 방향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 (4)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정류장에서 시각장애우가 도움을 청해올 때는 버스 번호가 보이지 않아 자신이 타고자 하는 버스가 왔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자신이 바쁘지 않으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시각장애우가 타고자 하는 버스가 왔을 때 시각장애우를 안내하여 버스입구의 왼쪽에 시각장애우의 손을 대어 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 (5) 승용차를 태우거나 함께 탈 때

시각장애우를 승용차에 태우실 때는 승용차 문을 열고 시각장애우의 손을 승용차 문에 갖다 대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시각장애우는 혼자서 탈수가 있습니다.



### (6) 의자나 소파에 앉힐 때

시각장애우를 안내하여 의자나 소파에 앉히실 때 단지 시각장애우의 손을 의자나 소파의 한 부분에 갖다대어 주시기만 하십시오.

시각장애우는 거기서부터 혼자 할 수 있습니다.

### (7) 커피나 음료수를 대접할 때

시각장애우에게 커피나 음료수를 대접할 때는 시각장애우의 앞에 있는 탁자에 놓으시고 시각장애우의 손을 살며시 커피잔이나 컵에 갖다 대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 (8) 쇼핑을 같이 할 때

시각장애우의 물건을 사기 위해 함께 쇼핑을 갈 때는 물건의 색상, 가격, 모양등을 가능하면 정확하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자의 설명이 시각장애우가 물건을 고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9) 시각장애우와 함께 식사를 할 때

시각장애우와 함께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드실 때는 메뉴판의 내용을 읽어주시어 시각장애우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식사가 나왔을 때 식탁 위에 놓인 반찬을 젓가락을 잡은 시각장애우의 손을 움직여 각각의 반찬 이름과 위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각장애우는 스스로 반찬을 선택하여 먹을 수가 있습니다.

### (10) 인사를 할 때

시각장애우와 인사를 할 때는 눈인사나 고개를 숙이는 정도의 인사는 시각장애우가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삼가하시고 말로써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잡아주거나 악수를 하시는 것도 좋은 인사법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삼가하

시고 말로써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잡아주거나 악수를 하시는 것도 좋은 인사법이 될 것입니다.

## 3. 뇌성마비

### 1) 원인

- ① 뇌가 미성숙한 시기에 뇌의 운동신경 손상이나 발육이상으로 인해 주로 운동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데, 때에 따라서는 감각, 언어 및 청각장애 또는 지능장애 등이 동반되기도 한다.
- ② 출산전 태아 상태에서의 뇌손상(산모의 바이러스 감염, 약물중독, 연탄가스 중독, 혈액형 부조화 등)
- ③ 출산시 아기의 외상으로 인한 뇌출혈, 산소결핍, 조산, 난산 등
- ④ 출산 후 사고 등으로 인한 뇌출혈, 뇌막염, 약물중독 등
- ⑤ 유전되지 않는다.

### 2) 장애 특징

- ① 무정위운동형 - 신체 각 부분의 운동을 조절하기 힘들어 목적없이 팔, 다리, 머리, 안면근육이 움직인다.
- ② 경직형 - 근육의 긴장이 심하여 사지와 목이 뻣뻣해진다. 심리적으로 긴장하면 경직은 더 심해진다.
- ③ 위의 두 경우가 혼합되어 나타난다.
- ④ 성기능은 정상이다.
- ⑤ 자력으로 배뇨, 배변을 할 수 있다.



## 4. 척수장애

### 1) 원인

- ① 척추 안을 통과하고 있는 신경(척수)이 손상을 입어 손상부위 아래로 운동, 감각마비가 생긴다.
- ② 교통사고, 산업재해, 질병(척수종양, 척수염, 바이러스 감염 등)등 불의의 사고로 인해 척추내 신경이 다쳐서 발생한다.

### 2) 장애 특징

- ① 운동장애뿐만 아니라 내장의 기능, 피부의 감각에도 장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 ② 방광 및 항문의 근육을 움직이지 못해 물리적 방법으로 용변을 보는 경우가 많다.
- ③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요로감염과 욕창이 대표적이며, 기타 방광염, 신염, 환상, 동상 등이 있다.
- ④ 체온과 땀을 자율적으로 조절하지 못한다.
- ⑤ 현기증, 두통, 호흡곤란, 골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 ⑥ 대부분의 경우 부부관계가 가능하다.
- ⑦ 척수의 손상 상태에 따라 마비의 정도와 부위, 동작능력은 사람마다 다르다.

## 5. 근이양증(근육디스트로피)

### 1) 원인

- ① 근육디스트로피라는 몸의 근육을 만들어 주는 단백질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해 근육이 조금씩 약해지는 병으로, 초기에는 자주 넘어지는 현상을 보이다가 점차 뛰고 걷기가, 나중에는 앉아 있기조차 어려워지다가 끝내는 눕게 되고 호흡마저 힘들어지는 병이다.
- ② 일반적으로 유전적 요인과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나 명백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 2) 장애 특징(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경우)

- ① 초기에는 외관상으로 전혀 장애가 없어 보이는 경우가 많다.
- ② 앉은 자세에서 무릎을 손으로 짚어야 일어설 수 있거나 다른 사람이 부축해 주어야 일어날 수 있다. 손에 힘이 없어 팔을 들어올리지 못한다.
- ③ 걸음걸이가 미숙해 보이며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지 못한다.
- ④ 서 있거나 앉아 있어도 몸의 지탱력이 부족해 누구에 의해 조금만 부딪치거나 스쳐도 넘어진다.
- ⑤ 심한 경우에는 휠체어를 타야 하고, 목을 세우지 못하거나 앉아서도 몸을 가누지 못하며, 용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 ⑥ 지능과 성기능은 정상이다.
- ⑦ 감각에 이상은 없다.



## 6. 소아마비

### 1) 원인

- ① 소아마비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균이 음식과 함께 입으로 들어가 척수까지 침범, 마비를 초래하는 전염성 질환이다.
- ② 대부분 소아기에 발병하므로 소아마비라는 병명이 붙었으나 청년기에 발병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 ③ 환경위생이 개선되고 예방접종 시행이 잘 되면서 최근에는 소아마비 환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 2) 장애 특징

- ① 마비는 상체보다 하반신에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마비의 정도도 다리에 더 심하다.
- ② 양 발 모두 마비가 있을 경우 휠체어나 크러치(목발)를 사용하며, 한쪽 발만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보조기를 이용하여 자력 보행을 할 수도 있다.
- ③ 대부분 용변을 스스로 볼 수 있으며 성기능은 정상이다.
- ④ 마비부위의 감각은 이상 없다.

## 7. 뇌졸중

### 1) 원인

- ① 뇌혈관 장애로 손상을 입은 뇌의 반대측 몸 절반에 마비가 온 것을 말한다. 흔히 반신불수, 편마비라고 부른다.

- ② 평소 혈압이 높은 사람에게서 돌발하며 교통사고나 추락사고에 의한 뇌손상, 뇌에 염증이나 암이 생겼을 때 발생할 수 있다.
- ③ 뇌출혈과 뇌경색 - 뇌혈관에 손상이 생겨 뇌에 피가 고인 경우를 뇌출혈이라 하고 뇌혈관이 막혀 뇌세포에 손상을 입게 된 경우를 뇌경색이라 한다.

### 2) 장애 특징

- ① 몸 반쪽의 마비(편마비) 외에 언어장애, 시각장애, 인지능력장애, 안면신경마비 등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 ② 대소변 조절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 ③ 마비 상태와 훈련 정도에 따라 동작 능력이 개인마다 다르다.
- ④ 부부관계가 가능하다.

## 8. 하반신 절단

### 1) 원인

- ① 질병으로 인해 절단하는 경우는 흔히 동맥경화증, 버거스씨병,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 암이나 골수염 등이다.
- ② 대부분 사고나 외상으로 절단된 경우이다.

### 2) 장애 특징

- ① 절단 부위가 무릎 위인 경우 휠체어를 사용하는 예가 많다.
- ② 훈련으로 보조기에 의한 보행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 장애우 일일교사 교육수첩 -장애체험 교육을 위한-

2002년 8월 발행

발행인 : 이성재

편집인 : 김정열

연구자 : 박지영

삽화 : 이상윤

발행처 :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제작 : 젊은기획 2264-2015

주소: 137-843 서울시 서초구 방배1동 924-13 근복빌딩 6층

전화: 02) 521-5364 / 전송: 02) 584-7701

E-Mail: cowalk@chollian.net

홈페이지: <http://www.cowalk.or.kr>

- 이 책은 국정홍보처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